



난민 아동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 보고서

나는 약 5평 남짓한 오두막집에 삽니다. 맨발로 캠프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아빠랑 형아는 매일 옥수수 밭에 일하러 가고, 엄마는 아픈 동생을 돌봅니다. 나는 매일 흙바닥에 새를 그렸다 지웠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 캠프를 나가는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상상합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 엄마, 형아, 동생 등 우리 가족 아홉 명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 아저씨는 36색의 크레파스, 색종이, 스케치북, 맛있는 과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나는 새를 마음껏 그렸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꿈을 꾸었고, 아저씨는 “간절히 바라면 꿈은 이루어진단다. 또,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말처럼 마침내 그 꿈을 이룬 나의 이름은 ‘재정착 난민 소태’입니다(2016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정착 난민 명태영 가족의 넷째아들 소태(6세)의 이야기).

1. 재정착 난민제도

지난 11월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난민캠프에서 머물다 국내로 들어오는 미얀마 난민 일곱 가족 34명의 입국 행사가 있었습니다. 재정착 난민제이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왔으며 미국, 호주 등 2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의해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3년간 9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정식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미얀마 난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난민은 미얀마 난민들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6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입국하였고, 이 가운데 2015년 제1기 난민 22명의 경우 인천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기초 법질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堂堂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난민 아동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

미얀마 난민 가운데 특별히 2세대인 아동들의 경우 교회와 지역사회의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이 다민족/다인종 국가들의 경우 이민 1세대들보다 2세대들의 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품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소장 이규홍)와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이사장 주승중),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병철)은 난민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민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난민 등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타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을 서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4. 오래된 미래

미얀마 난민들은 2015년부터 입국하게 되었지만, 사실 미얀마 출신의 이주민들은 이미 우리 주안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 부평역 앞에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평역 앞에는 성업 중인 미얀마 식당만 10-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얀마 난민을 돕기 위한 주안복지재단의 첫 발걸음의 해답은 이미 진행되어 온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7년부터는 주안교회 외국인 선교국 안에도 미얀마 예배가 신설된다고 하니 함께 협력하여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